

교회 목표

신앙전 에베
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H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다음 주일(7월 4일), 맥주감사예배로 드려

1부·5부 예배 시에는 제4차 성찬식 거행



맥주감사절의 유래 -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이다.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날 유대인들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수수를 무사히 마치고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엄숙한 가운데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곡물 수확에 관한 감사를 표하는 날이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로 그 시기와 명칭이 변경되어 지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교박을 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쌀 추수에 맞추어 지켜지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보리 수확과 관계되는 맥주감사절 역시 계속 지켜져 오고 있다. 이러한 맥주감사절은 한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맥주감사절의 의미 - 본래 유대인의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을 드린 축제였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맡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깊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던 날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신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맥추절을 보내야 할까? 농사를 짓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먼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왔음을 돌아보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열매들을 열매나 거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생활이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영혼의 추수 곧 영혼 구원의 열매도 돌아보고 감사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04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 시에, 분당에서

학식·세례·입교·개종자들은 오후 4시 30분까지 분당영/유아세례자들은 오후 2시 30분까지 갈릴리움로

달고요한그말씀(금요일) - 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 제2장. 장래에 입할 천국 /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성경에 사용된 '비밀'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비한 것이라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알들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기를 좇아 된 것이나..." 여기서 '비밀'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 바 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인간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알릴 때 비밀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나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가 마침내 세대로 계시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명이 성취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도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다(마 13:11). 구약에서는 계시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으로 돌아야 한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은 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는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질 것이나..."(에 244-45).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실 열왕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는 이 땅의 악한 열왕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리고 이 땅을 의로 채우시는 큰 사건! 하나님께서 만국을 친히 통치하시는 날! 이처럼 구약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의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떠한가?

세례 요한의 메시야를 보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다. 즉, 그는 구약에서 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와 함께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마 3:1).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의문을 품게 된다. "...오실 그 분이 당신이요니까 우리가 다 이를 기다리요리까"(마 11:3).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었던 까닭은 다니엘의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헤롯 왕 안티파스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통치하고 있었으며 로마 정권은 날로 번창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와 다신교만 율원으로 가득 찬 로마는 아직도 쇠망치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혼란스러운 수확에 없었다. '예수님이 참으로

2004년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부서 명	기간	장소	주제	강사
영아부	7월16일(금)~7월17일(토)	영아부실	거듭난 아가	이옥연 전도사
유아부	7월20일(화)~7월21일(수)	유아부실	세상이야 되었어요	김정원 전도사
유치부	7월20일(화)~7월21일(수)	제2교육관 1,2층	거듭난 천국일꾼	조옥자 전도사
유년부	7월20일(화)~7월21일(수)	제1교육관 3층	거듭난 천국일꾼	안찬원 목사
초등부	7월26일(월)~7월27일(화)	제1교육관 4층	거듭난 천국일꾼	장종순 목사
소년부	7월26일(월)~7월27일(화)	제1교육관 5층	거듭난 천국일꾼	최 종 목사
중등1부	7월26일(월)~7월28일(수)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일꾼	황준희 목사
중등2부	7월26일(월)~7월28일(수)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일꾼	이희식 목사
중등3부	7월27일(화)~7월29일(목)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일꾼	양재용 목사
고등부	7월29일(목)~7월31일(토)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일꾼	이창수 목사
대학부	8월24일(화)~8월26일(목)	충현기도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안창덕 목사
청년1부	7월16일(금)~7월17일(토)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일꾼	김용덕 목사
청년2부	7월16일(금)~7월17일(토)	제1교육관	거듭난 천국일꾼	김준희 목사
청년1부	7월17일(토)~7월18일(일)	배다나홀	영적 도약을 위하여	류병호 목사
청년2부	7월5일(월)~7월6일(화)	충현기도원	임술의 제사를 드리지	김영호 목사
청년3부	6월28일(화)~6월29일(수)	충현기도원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방준영 목사
소망부	7월1일(목)~7월2일(금)	갈릴리움	주안에 있는 천국 일꾼이 되자	이종대 목사
신혼가정부	7월17일(토)	제1교육관 201호	거듭난 천국일꾼	정진호 목사
사랑부	7월17일(토)	사랑부실	예수님을 같이 생각하라	나광영 목사
에미디부	7월16일(금)~7월17일(토)	제1교육관 2층	새생명, 새사람	박민기 목사

다음 주일 CMTC 일정

1 교시(18:10-19:10)	장소	2 교시(19:20-20:20)	장소
충현교회의 선교정책	갈릴리움	성도의 성경적 기초	갈릴리움

메시아시라면 왜 아직도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자들의 안타까운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 11:6).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비밀이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통치권을 모두 무너뜨리는 대신에 사탄의 통치권을 침략하는 것이다. 외적인 변화, 정치적 인 변화를 가져오는 대신에 영적인 상태와 인간의 실 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 하심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단계를 거쳐서 역사한다. 장차 때가 되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그 모습 그 형태를 볼 것이다. 그 때에 모든 인간의 주권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게 보여 주신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인간의 규례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죄를 이 세상에 퍼트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중증화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군중들로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과 죄의 사슬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데서 오는 그 축복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다.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선물이니 것이다.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러나 권유하고 계실 뿐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 이 때때로 13세기 기독교되어 있는 모든 비유들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다. 즉,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에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이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차 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준다. 돌궤발, 길기, 기시, 발, 옥토에 씨가 뿌려졌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인간에게 전혀 감추어졌다. 옥토와 같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LORD'S SUPPER

...⁽²³⁾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²⁴⁾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²⁵⁾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²⁶⁾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²⁷⁾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²⁸⁾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²⁹⁾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 (1 Corinthians 11:17-34)

Among our many worship services, the Lord's Supper is one of the most sacred. At this Supper, believers come together and join with Christ in remembrance of His suffering. Today's Bible passage provides descriptive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actice of the Lord's Supper. As you prepare yourself to join in this holy form of worship, please consider the general concepts as highlighted in these verses.

Christ, not man, controls the Lord's Supper. He established it, and He heads it. Church leaders may announce His invitation and serve His food, but He handles the guest list. Remember that Judas Iscariot sat at the very first Supper. Paul chastised the Corinthians for their discriminating practices, "But in giving this instruction, I do not praise you, because you come together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v. 17). Apparently, some of the wealthier members were not sharing their food but greedily consumed it before the poor showed up (v. 21). Paul warned them to "wait for one another" (v. 33). In other words, the Lord's Supper is a time for deep fellowship between you and Christ, and you and His guests. Please learn to respect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love them as you love yourself.

The Lord's Supper is not an option, but a command. Christ said, "Drink from it all of you" (Mt. 26:27). Paul reminded the Corinthians that what he received from the Lord is what he actually delivered to them,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v. 23-25). If Jesus Christ is your Lord, then you should do what He orders. He asked,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Lk. 6:46)? The Lord's Supper is a great privilege for believers. Please obey His commands.

At the Lord's Supper you proclaim Christ's death. The bread

represents His crucified body and the cup His blood. Paul reminded the Corinthian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The Lord's Supper is a place to remember Christ's cross, suffering, and death. Please come today, and proclaim His death.

The Lord's Supper is not a one-time worship event, but a continuous practice until Christ's return. Our church celebrates Holy Communion seven times a year. Other churches choose different intervals, but all true churches partake of His Supper on a regular basis. When He comes back, then you will have the final marriage feast. Until then, do not ignore or forsake this blessed Supper. Please accept all His invitations.

The Lord's Supper is a serious gathering. You really must watch yourself. Paul warned the Corinthians,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v. 29). He also said,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v. 27).

Please take the time to pray and examine yourself, confessing all your sins to the Lord.

The Lord's Supper empowers you for witness. When you come to the Lord's Table, be humble and true, then Christ will spiritually feed you. You will be full! You will have the power to witness to others. Your desire to share Jesus Christ with those who want to know Him will be strengthened. Christ instructed His disciples,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Please come today, and be filled with the spiritual food that nourishes eternal life.

My dear believer, are you ready to join the Lord's Supper? Is your heart soft? Is your mind remembering Christ's death? Has the Lord cleansed your soul? If so, come! Come and partake of this great blessing. Amen. 

주의 만찬

“...²³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²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²⁵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²⁶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²⁷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²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²⁹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17-34)



김성관 목사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서 주의 만찬은 가장 신성한 예배 중 하나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찬, 형제들과도 깊이 교제하는 곳

주의 만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의 만찬을 지휘하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신자들을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떡과 잔을 나누어주시는 하지만, 초대된 사람들을 맞이하고 만나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첫 번째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안에는 주의 만찬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크게 책망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1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자인 교인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육식을 내며 음식을 다 먹어치운 결과 가난한 교인들이 왔을 때는 먹을 것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21절).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33절).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러분과 동료 신자들이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동료 신자들을 존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찬, 신자들의 위대한 특권

주의 만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마 26:27).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에서 시행한 주의 만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23-25절).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지 아니하느냐?”(눅 6:46). 주의 만찬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만찬, 재림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곳

주의 만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나누는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은 주의 피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와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만찬은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총현교회는 일년에 일곱 번 주의 만찬을 시행합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횟수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으로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주의 만찬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그 때까지는 이 복된 만찬을 무시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만찬, 그 합당한 준비와 놀라운 축복

주의 만찬은 엄숙한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서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29절).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27절).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서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그러므로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살지게 하는 생령한 양식을 마음껏 먹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에 나아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주셨습니까? 어서 와서 이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장로 칼럼

준비하며 감사하는 18교구



강철형 (장로, 18교구장)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a). 이는 아무 유쾌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전 1:29).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8교구는 신실교구로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수지, 죽전, 구성, 신갈, 용인, 양지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11세대(601명) 7개 지역과 3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꾼은 85명으로 세대수에 비해 구역이 많습니니다. 이제 오는 교회식구들이 계속 늘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역적 특성 상 구 밀집도가 떨어져 구역장 중에 한 명만 결원이 생겨도 어려움이 있고 어떤 구역은 구역 식구가 없어서 구역에 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저희 교구식구들이 자신을 부교구장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며 영혼구원에 전력하기 위해 ① 모이면 기도하고 ② 흠여지면 전도하고 ③ 연약한 지체를 세우며 섬기고

지난 수요일에 배사지

이스라엘의 신앙 (시 78:40-42)

오늘은 시편 78편을 흠여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이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광야생활을 하였다.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으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시 78:1-3). 그들은 스스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불신앙의 삶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한결집지 않은 삶 때문이다 -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 “여호와와 행한 신 것과 저희에게 보인 신 기사를 잊었도다”(11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으나 큰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하여 범법하였고 광야에서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하였나(17절)... 인간의 어리석음과 배은 망덕은 실로 끝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저절처럼 탄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저희 탄복대로 식물을 구하여 저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음”(8절).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은 무엇이었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몸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가?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나 무엇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탐하며 또 다른 것을 구하였나(9,20절). 혹시 우리도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 불과하다(21절). 그리고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시신을 갈라놓는다(골 2:20). 아, 불신앙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추악하고 어리석은지! 연례적으로 어떤 죄악의 굴레에 갇혀 있을 것인가?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악의 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자.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자(사 59:1,2).

믿음의 결핍 때문이다 - “저희의 믿지 않음은 인하여 거저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마 13:58).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그 사람들! 그들이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마 6:5,6).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뿐이었을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흘,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하나 고치지 못하여 찢을 데고 있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소

④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구가 되기를 온 교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청기주헌헌 때 교회는 4,500여 명이 모인 것에 감사했고, 18교구도 33%의 높은 출석률을 올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니다. 부교 표어처럼 주님 앞에 모이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감당하는 교구 가족들의 헌신 앞에 물리적인 거리, 시간 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각자가 서로 확보를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었습니니다.

특히, 뇌수막염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으신 P권사님의 출석, 위암수술 후에도 힘든 몸으로 3층까지 힘겹게 올라오시면서 환하게 웃음을 보여주신 K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으며 교구식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꾼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돌아가신 한 권사님의 장례식에서 보여준 교구 식구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18교구가 이미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7개 지역 단기신도들이 구성되어 언어훈련, 영성훈련, 팀훈련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91명전도를 위해 수지구단장과 어정가구단장께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용전도와 노방전도, 축조전도, 천인척전도 등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경건함이 보람으로 나타나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받아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커져 온 헌신적수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년을 고쳐추신 후에 제자들은 묻는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마 17:20). 이전에 전도를 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믿음을 잃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교만과 자기의 예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 아, 회개하는 우리가 되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적시고,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회개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심의 기도 때문이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지! 가만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듯 하면서 돈을 몰래 훔들러 자기 배를 채웠듯이, 혹 우리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처럼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않으신다. “내가 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사 66:18). 우리의 정복을 채우려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고 길며 유행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사 43). “회개하 손을 펴 때에 내가 너를 가리우고 너가 알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들의 손이 패가 가득함이라”(사 1:15). 아, 우리 자신을 위한 요구가 없어지는 기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은 완전히 있어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기기를 원한다.

고린과 자손 때문이다 -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선민적이고 특권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어린 새끼 울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완전히 구별시켰다. 신앙적인 교만이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연한 소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들의 보기에 흉모한 만한 아람사람이요”(사 53:2). 신앙적인 교만과 자존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눅 19:41, 42). “자기 몸과 내 자기 백성이 영정지 아니하였나”(요 1:11). 왜 그랬을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자존심으로 돌돌 묶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자비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피로움을 받기도 한다. 자존심이 있어서 대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남보다는 불인과 소고만 가득하다. 주님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겸손히 부르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나.”(마 11:28-30).

주님의 초대에 응하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신다. “떨어지면 내가 네 땅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레 3:20). 주님의 은로운 방문을 놓치지 마라. 주님의 권능을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우리기기를 바란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를 놓지 마라. 아, 어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권능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

나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선교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저는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인간의 일로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붙들어주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단기선교를 두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부끄러운 자이지만, 그런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감히 권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마21:22).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처해 있을 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G국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만난 어린 영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와 말한단 그들 중 한 영혼이라도 더 변화되기를, 그리하여 그 변화된 영혼을 통해 더 많은 G국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간 G국에서는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작년보다 매 주마다 4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한 15세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

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마을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소년을 통해 몇 권의 성경과 전도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문물 위에 비록 작게 세겨져 있었지만 너무도 선명한 십자가는 G국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복음의 흔적이었기에 더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새한 바람으로 모래가 날려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고 마을 사람들도 급작스런 기온 변화에 추위와 바람을 피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기도로 한 영혼이라도 다급히 붙잡는 심정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떠는 아이를 바람으로부터 막고 끌어안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동안 어느 덧 바람이 그쳤고, 몇 개 주 안 되어 보였던 그 마을 골목골목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물리나와 마을 공터에서 아이들과 책 원을 만들어 '예수 사랑합니다'이라는 찬양과 율동을 몇 번이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 되어 작별 인사를 하듯 여전히 그 자리에 만든 원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서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다. 그 귀한 영혼들도 우리도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혼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값진 심정을 체험하게 하시는 큰 은혜!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큰 축복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넓은 G국 곳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크게 성장할 것을 믿으며, 앞으로의 제 삶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미경(청년1부)

목자의 심정

R국으로 선교지가 정해지고 자택에 들려오는 소식은 부정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팀원들의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선교지를 향해 대담하게 떠났습니다.

공방에서 출입관리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방을 뒤지더니 저희들이 가지고 간 전도지를 보며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이야? 모슬렘 국가인 이 나라에 기독교를 전하러 왔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러나?'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전도지를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지를 한 장도 뺏기지 않고 선교지로 무사히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R국에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배와 마약에 빠져있었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예비한 영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였고,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글라스'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슬렘인 남편과 자녀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글라스를 가운데 앉게 하고 글라스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이 감동되어 예수님을 자신의 주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글라스에게 앞으로 믿음을 지킴이냐는 방법과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슬렘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곤란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할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한없는 은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아혼아홉 마리의 양을 들며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글라스의 집이 루디아의 집과 같은 기도처, 애매하게 되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였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하러만 하던 것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정숙(집사, 13교구)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6월 15일(화)-6월 23일(수)	K	4교구 5지역	박필재	6월 16일(수)-6월 25일(금)	K	10교구 2지역	정영환
6월 15일(화)-6월 23일(수)	K	8교구 9지역	박승일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6월 28일(월)-7월 9일(금)	J	9교구 8지역	조중경	6월 29일(화)-7월 10일(토)	D	8교구 4지역	이연원
6월 28일(월)-7월 9일(금)	J	17교구 7지역	김연근	6월 30일(수)-7월 9일(금)	K	18교구 7지역	유상현
6월 28일(월)-7월 7일(수)	B	대학부 18	고승근	7월 2일(금)-7월 10일(토)	M	대학부 19	박종철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6월 21일(화)-6월 30일(수)	D	10교구 7지역	심해빈	6월 23일(수)-7월 2일(금)	K	2교구 6지역	정은환
6월 23일(수)-7월 2일(금)	K	애버무비 1	조종현	6월 23일(수)-7월 2일(금)	G	13교구 5지역	김은철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봉은 밝히지 않습니다.

새가족들과의 만남 ①

1.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지요?



김현연(15교구)

"30년 동안 불교를 믿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한 자녀들이 중학교 종교동부 출신인데, 항상 저에게 교회에 출석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지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동안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저희들을 가르치면서 잔잔함을 많이 주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희들마저 미국에 건너와 있어서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하구요. 그런데 죽은 후에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같이 가야하죠.' 자녀들의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결심했지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경향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마음도 그리 편치 않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두세 번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때부터는 주일이 기다려졌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배우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저는 주로 질문에 요약되어 있는 설교문을 어려운 부분을 표시해 놓았다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성경을 직접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주일총회에 실리는 설교문을 미리 읽고 준비한 후에 설교를 들으니까 더욱 더 쉬워졌습니다."

3. 후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 때는 없으셨는지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주일마다 하는 일들도 많고 가는 곳도 많았는데, 중학교의 새가족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모든 일들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교회로 오는 데라도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또 교회에서 새가족 집회에 참석하고 주일3부 예배를 드리면 3~4시간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긴 시간 공부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는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4.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이전에는 누가 아무리 잘 말해도 예수님의 부활이나 제림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에게 반박하러 마저 묻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랬던 저의 모습을 가장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요즈음은 출퇴근 시에도 꼭 기도하러서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5. 이번엔 학습문답을 하시면서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나 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도 몰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참 어려움을 느꼈는데. 예수님을 더 배우고 알게 되면 그런 어려움도 해결되고 전도도 잘 할 수 있겠지요"

새가족들과의 만남 ②

제가 교회에 처음 오기로 결심한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말로 권했었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분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쇠 빔장으로 단단하게 닫혀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25년만에 만난 친구의 전도를 통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꼭 가지 않으면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던 제 마음이 왜 그 때 그렇게 흔들렸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두렵고 놀라웁습니다.

중학교에서 처음 온 날, 본당에 들어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하면, 눈물이 다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쇠 빔장으로 단단하게 닫혀 있었지만, 그 때 저를 붙들고 주고 용기를 주었던 분들은 새가족 부에서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형편과 처지가 갈라지는데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대화도 잘 했습니다. 새가족부에 한 두 번 출석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되는데, 소극적으로 계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내 주머니를 믿으라"고 말했던 저인데, 지금은 그렇게 말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초보자인데 앞으로라도 복음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노회식(6교구)

삶을 아우르며, 첼로의 송가

늘 뒤통기리며 베이스음을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리더인 바이올린 음을 받쳐주기에 두 손은 해쁩니다.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고 팔이 굳어서,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봉사할 시간이 짧은 것 같아 부끄럽지만 늦게라도 허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르는 품이 넓은 따뜻한 음으로 영원을 노래하는 첼로이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가 한 첼로 늦게 찾아오는 삶으로 머물러라도, 십자가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며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외치시던 순수한 십자가 복음과 미사여구 섞지 않고 성경으로만 풀이 가셔서 달고, 맛있는 좋은 말씀!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집으로 몰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버려진 자에게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고, 모든 허물, 비뚤비뚤을 걸어온 길, 가우어 버린 곳은 마음도 보물로 꾸민받아 거듭남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진짜야!'라는 말은 매일 들어도 달고 맛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언!'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는 합니다.

듣기보면 쉽고 사무치게 아파하며 살아온 날들, 해마다 긴 시간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 한다는 의심하던 손끝! 그러나 이제는 또한 그 열 손가락 통가 주님께 송가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육함을 깨뜨려 눈물범벅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던 마달라 마리아, 처절한 자신의 생애에 찾아와 치유하신 주님을 따르다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아 중언이 되었던 마리아! 여러분들은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부활의 중언이 되십시오." 이 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강단에서 섰으며 그 말씀을 거듭 되새기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십자가의 주님! 생명의 노래 부르며, 부활의 중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쓰러린 침묵 같은 삶의 질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정인선(집사, 임마누엘케스트라)

신앙의 점점

대학부 때 직장으로 몇 년 섬기면서 배운 것이 참 많았다. 그래서 난 스스로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다. 취직한 직장에서도 틀어 있었지만 그런 착각을 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하였고 나름대로 한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조원들에게 말하고 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원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조원이었고 그 형도 잘 나가도록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의 의견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 후 그 형과 몇 번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는 나의 신앙이 옳거나 잘못된 신앙은 아니었다지,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 해에는 예배에 있었다. 예배를 통해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 그 권위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가진 가치관과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금요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고 부담스러워 소년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깊은 오묘한 복음'을 통해 꼭 한 가지만은 알아 가지고 나오자'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하나를 알아 나오기 위해 섰는데 말씀에 집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금요집회를 통해 내 생각과 상상 속에 가두어놓았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 우주를 뛰어넘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 좁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두어 두는 대신 넓은 하나님 안에 나를 위탁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어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 간다. 이제는 힘들어도 사고를 당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양 또는 염소가 된다. 양으로 서있는 사람들은 염소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경비해야 하고 염소로 서있는 사람들은 양의 길을 선택하도록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할 것 같다. 왕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때문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 25:31-33).



김창범(1부)

교회탐방 ④ 청년부 단기선교팀

복음의 신을 신으며 (엡 6:15)

“우리 교회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기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많은 성도들이 이에 동참하여 전도자의 길을 나선다. 올해만 해도 벌써 632명의 성도들이 선교를 다녀왔고 많은 이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단기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팀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개인적으로 단기선교 준비는 어떻게 하시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데 매번 모임 때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팀원들끼리 일정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오경진)

2. 본인이 판단하여 단기선교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딱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무엇이 보다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단기선교에 집중하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오경진)

“저는 팀워크 언어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영적 무장과 선교 대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사단은 선교지에 가서 팀원들의 약한 점을 부각시켜 영혼을 사방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신시키는 거룩한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 눈은 고정 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교 대상국에 대하여 철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짧은 단기 선교기간에 타 문화권에 대한 문화적 충격과 적응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의 영혼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정)

3. 개인적으로나 팀에서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점은 무엇입니까?

“시간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 모임 때 보면 항상 업무적인 일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선교를 갈 수 있을까하는 갈등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갈등과 싸우고 맘을 지쳐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은희)

“팀원들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경진)

“일정에 맞춰 유가 내는 것이 꽤 힘들었습니다.” (김성훈)

4.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당대만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기쁨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경진)

“사역지에서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만나는 사람들, 식당에서, 숙소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황대원)

5. 결산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의 팀이 사역 우 귀국해서도 기도회를 갖고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은희)

“근저 교회에 등록을 권유하고, 그 교회에 출석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김성훈)

“연이어 성경을 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영육으로 기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있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전해 주고 싶습니다.” (황대원)

6. 청년부 팀인데, 청년들끼리 준비하면서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의욕은 앞서는데 직장인들과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임을 가질 때 같이 모이기 힘들네요. 그러나 확실히 젊은 피라 그런지 사역 일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활기가 있습니다.” (이은희)

“먼저 유가하기를 잘하는 일이 어렵고, 청년부 교사로서 전체 선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인데 어린애가 같은 생각과 행동이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 빼고는 많은 부분이 청진이라 생각합니다.” (오경진)

7. 준비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야기에 주십시오.

“이렇게 부족하고 강력한 사람들, 참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인데 다들 팀에 각각 필요한 달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모여서 사역을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그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겠지요.” (이은희)

“선교를 갈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물질과 믿음 등등을 주신 것. 특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팀 다행!” (오경진)

“이 죄인에게도 영혼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과, 앞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삼의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함께 품을 수 있게 아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연정)

장모/편심심

다름주일 찬송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다름주일 찬송 ‘유월절 때가 이르매’는 마태복음 26장 26-28절에 있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3절과 4-6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목상해 보자.

1~3절: 친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지 없는 인자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광 예수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해야 한다.

4~6절: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사해하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각오와 결심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이 성찬의 의미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형식적인 성찬이 아닌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함께 하는 이름

최승복 권사 (85세, 7교구) 최승복 권사님께서는 백내장을 수술하러다가 관상 동맥에 균열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다. 노환으로 인해 당뇨와 천식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야 하다고 했지만 지난 5월말쯤 퇴원하시어 집에 계십니다. 그러나 위중한 상태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천국을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또 늘 기쁨으로 노래 드십니다. 최승복 권사님께서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 가·족·을·원·함·영·화·시·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453	전인호	1	장로회	김영환(17)	1468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33	정민호	19	대학부	노미숙(14)
1454	신경희	1	장로회	김영환(17)	1469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34	오은경	19	대학부	이재숙(19)
1455	송영희	1	장로회	김영환(17)	1470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35	정민호	19	대학부	최영진(19)
1456	이은희	1	장로회	김영환(17)	1471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36	정민호	19	대학부	박성원(17)
1457	이은희	1	장로회	김영환(17)	1472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37	정민호	19	대학부	이정민(19)
1458	조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73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38	정민호	19	대학부	김승준(19)
1459	문순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74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39	정민호	19	대학부	박주영(19)
1470	김영환	2	장로회	김영환(17)	1475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0	정민호	19	대학부	정영애(19)
1471	김영환	2	장로회	김영환(17)	1476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1	정민호	19	대학부	유순정(19)
1472	김영환	2	장로회	김영환(17)	1477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2	정민호	19	대학부	오미애(19)
1473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78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3	정민호	19	대학부	김승준(19)
1474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79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4	정민호	19	대학부	정승민(19)
1475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0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5	정민호	19	대학부	이영희(19)
1476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1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6	정민호	19	대학부	문민정(19)
1477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2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7	정민호	19	대학부	박정민(19)
1478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3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8	정민호	19	대학부	조지현(19)
1479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4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49	정민호	19	대학부	김승준(19)
1480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5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0	정민호	19	대학부	박지현(19)
1481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6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1	정민호	19	대학부	황지숙(19)
1482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7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2	정민호	19	대학부	이영희(19)
1483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8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3	정민호	19	대학부	정승민(19)
1484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89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4	정민호	19	대학부	김승준(19)
1485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0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5	정민호	19	대학부	이영희(19)
1486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1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6	정민호	19	대학부	정승민(19)
1487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2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7	정민호	19	대학부	박정민(19)
1488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3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8	정민호	19	대학부	이영희(19)
1489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4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59	정민호	19	대학부	김승준(19)
1490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5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60	정민호	19	대학부	박지현(19)
1491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6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61	정민호	19	대학부	이영희(19)
1492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7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62	정민호	19	대학부	김승준(19)
1493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8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63	정민호	19	대학부	정승민(19)
1494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499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64	정민호	19	대학부	이영희(19)
1495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500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65	정민호	19	대학부	박지현(19)
1496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501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66	정민호	19	대학부	이영희(19)
1497	이은희	2	장로회	김영환(17)	1502	이은희	14	소망부	백승훈(18)	1567	정민호	19	대학부	정승민(19)

★ 순창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